

**2019학년도 부산대학교 대학입학전형 대비  
모의논술고사(인문·사회계) 문제지**

지원학과(학부)		수험번호		성명	
----------	--	------	--	----	--

**【유의 사항】**

1. 시험 시간은 100분입니다.
2. 답안은 답안지의 해당 문제 번호에 연필 또는 샤프로 작성하시오.
3. 답안을 수정할 때는 지우개를 사용하시오.
4. 제목을 쓰지 말고 본문부터 시작하시오.
5. 학교명, 성명 등 자신의 신상에 관련된 사항은 답안에 드러내지 마시오.
6. 답안 연습은 연습지를 활용하시오.
7. 답안지, 연습지 및 문제지에 필요한 인적 사항을 기입하였는지 확인하시오.

**【문제 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언어는 권력을 따라간다. 갈수록 세계화되고 동질화되는 시대에 세계의 통신과 상업을 지배하는 언어들이 지정학적 국경과 지리적 경계를 뛰어넘어 소수 언어들을 사멸시키고 있다. 로마 제국의 언어는 라틴어였다. 로마시대 군대를 가거나 관료가 되기 위해 라틴어 학습이 필수였다. 제국의 영향력이 미친 지역은 정복에 의해서건 출세를 위해서건 라틴어를 익히고 구사할 필요가 있었다. 지역 고유 언어는 일상의 소통도구였을 뿐 공문서, 출판물 같은 공식적 통용 언어는 라틴어였다. 시간이 지나면서 라틴어는 지역 언어와 문화를 잠식해 갔다. 이 같은 측면에서 라틴어는 ‘권력의 언어’ 혹은 ‘제국의 언어’로 불린다.

(나) 언어의 죽음은 삶을 풍요롭게 하는 문화의 퇴보를 가져온다. 예를 들면, 고전문학 작품은 그 시대 사람들과 소통을 가능케 하고 문화를 간접체험 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 다양한 문화를 대변해주는 언어가 없다면 이는 불가능 할 것이다. 만약 언어를 보존하지 않고 사라지게 둔다면, 비극의 시초로 여겨지는 「오이디푸스 왕」, 르네상스시대를 대표하는 셰익스피어의 4대비극과 같은 작품을 접할 수 있었겠는가?

다양성이 없는 사회는 죽은 사회와 다름 없다. 언어는 사회의 다양성을 보장하고 정신과 문화를 대변해 준다. 따라서 언어 속에 녹아있는 문화와 정신을 다른 언어가 완벽하게 대체할 수 없다. 한국어의 다양한 색채어 표현을 생각하면 이해가 빠르다. 한국어의 경우 빨간색은 시빨간, 새빨간 등으로 어휘가 확장된다. ‘새빨간 거짓말’, ‘하얀 거짓말’ 처럼 관용적인 표현도 있다. 다른 언어가 한국어의 다양한 색채어를 번역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영어로 보면 시빨간이나 새빨간이나 모두 ‘레드(Red)’ 일 뿐이다. 풍부한 어휘는 문학작품을 빛나게 해준다. 영화나 음악도 마찬가지다. 소리 없이 언어가 사라진다면 인류는 문화의 다양성을 잃고 획일화 될 것이다.

(다) 스위스는 여러 개의 주로 이루어진 연방제 국가이며, 주마다 각각 다른 언어를 사용하고 있다. 연방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각각의 지역에서 사용하던 언어가 그대로 그 주의 공식적인 언어가 되었기 때문이다. 오늘날 스위스는 독일어, 프랑스어, 이탈리아어, 로만슈어 등 4개의 언어를 공용어로 사용하고 있다. 이처럼 다중 언어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스위스는 언어 갈등이 거의 나타나지 않고 있다. 스위스의 모든 학교에서는 지역에서 사용하는 언어 외에 다른 지역의 언어를 하나 이상 의무적으로 배우도록 하고 있다. 또 언어적 소수자를 지원하기 위해 다중 언어를 사용하는 대리인을 두며, 각 부처에 통역 인력을 추가로 고용하였다. 그 결과 네 언어권이 서로의 언어와 문화를 이해할 수 있게 되었고 지역 갈등이 사라지게 되었다.

(뒷면에 계속)

(라) 영어가 세계로 확산될 수 있었던 이유는 영어 사용자들이 과학 기술 분야에서 주도적으로 부상하면서 세계 경제를 상당 부분 장악하게 된 것과 관련된다. 특정 언어의 지식을 가짐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이 크면 클수록, 그 언어는 더욱 습득할 가치가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지구촌의 언어는 영어이다. 영어를 사용하지 않는 것은 세계적인 경제 혜택으로부터 추방될 위협에 처하는 것이다. 신생 독립국들은 적어도 부분적으로는 이런 이유로 인해 자국의 언어를 발전시키기보다는 예전 식민 종주국의 언어를 사용하기로 선택한다. 이런 나라의 엘리트 계층은 일반적으로 교육을 통해 언어를 습득하고, 그 지식을 이용해서 그 언어를 모르는 대다수 국민들에 대해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를 유지한다.

(마) 우리 일상에서 사투리가 하나둘 사라져 가고 있다. 국립 국어원이 발표한 제주어 생태 지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제주어의 80%가 소멸 위기에 처해 있다고 한다. 앞으로 으남(안개), 상고지(무지개)와 같은 제주어를 영영 듣지 못하게 될지도 모른다. 이에 제주어 보존과 육성을 위한 조례를 마련하고, 제주 사투리 구사 기능을 무형 문화유산으로 지정하는 등 제주어를 보존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역 사투리를 보존하고 가꿔 나가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우리 문화와 전통, 구체적 일상이 담긴 소중한 유산이기 때문이다. 다양한 사투리가 있다는 것은 축복이며, 언어 경쟁력의 핵심 요소이다.

(바) 서로 다른 연령층의 언어사용 양상에 대한 정보로 한 사회에서 발생하는 언어변화가 어떠한 방향으로 이루어질지 예측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뉴욕시 일부 지역에서는 하위계층보다는 상류계층에 의해 더 많이 사용되었던 \*rhotic R 발음을 더 권위가 있는 발음으로 여겼고, 나이 든 사람들보다 젊은 사람들이 더 많이 사용하였다. 그 결과 rhotic R 발음의 사용 지역이 빠르게 확산되어 뉴욕시 전역에 널리 퍼져 사용되게 되었다. 이는 젊은 사람들이 혁신적인 새로운 형태의 언어를 더 많이 사용하는 경향이 있는 반면에 나이 든 사람들은 언어변화에 보수적인 태도를 보여 자기들이 사용하던 기존의 언어 형태를 그대로 유지하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이를 고려할 때 젊은이들의 말에서 권위가 있는 표준 형태의 사용 빈도수 증가는 그것이 그 사회에 새로운 언어형태로 도입되어 언어변화가 일어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rhotic R 발음: 'car' 에서와 같이 모음 바로 뒤에서도 소리가 나는 미국식 발음.

1-1. 제시문 (나)의 논지에 따라 제시문 (다)와 (마)의 사례를 분석하시오. (200자±20자) [10점]

1-2. 제시문 (가)의 밑줄 친 언어는 권력을 따라간다는 예를 제시문 (가), (라), (바)에서 각각 찾고, 그 의미를 구분해 설명하시오. (300자±20자) [20점]

(다음 장에 계속)

**【문제 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사람들은 아버지를 난장이라고 불렀다. 사람들은 옳게 보았다. 아버지는 난장이었다. 불행하게도 사람들은 아버지를 보는 것 하나만 옳았다. 그 밖의 것들은 하나도 옳지 않았다. 나는 아버지·어머니·영호·영희, 그리고 나를 포함한 다섯 식구의 모든 것을 걸고 그들이 옳지 않다는 것을 언제나 말할 수 있다. 나의 ‘모든 것’이라는 표현에는 ‘다섯 식구의 목숨’이 포함되어 있다. 천국에 사는 사람들은 지옥을 생각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우리 다섯 식구는 지옥에 살면서 천국을 생각했다. 단 하루도 천국을 생각해보지 않은 날이 없다. (...중략...) 아버지는 그 동안 충분히 일했다. 고생도 충분히 했다. 아버지만 고생을 한 것이 아니다. 아버지의 아버지, 아버지의 할아버지, 할아버지의 아버지, 그 아버지의 할아버지——또——대대로 거슬러올라간다. 그들은 아버지보다 더 심한 고생을 했을 수도 있다. 나는 공장에서 이상한 매매 문서가 든 원고를 조판한 적이 있다. 그 내용의 일부를 짜기 위해 나는 열심히 손을 놀렸다. ‘婢 金伊德의 한 소생 奴 今同 庚寅生, 奴 今同의 양처 소생 奴 金今伊 丁卯生, 奴 今同의 양처 소생 奴 德水 己巳生, 奴 今同의 양처 소생 奴 存世 辛未生, 奴 今同의 양처 소생 奴 永石 癸酉生, 奴 金今伊의 양처 소생 奴 鐵壽 丙戌生, 奴 金今伊의 양처 소생 奴 今山 戊子生’ 나는 그때 이것이 무엇인지 몰랐다. 그 판을 짜고 다음 판을 짜나가다 겨우 알았다. 노비 매매 문서의 한 부분이었다. 나는 열흘 동안 같은 책을 조판했다. 그 열흘 동안 나는 아버지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어머니하고도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 나는 어머니의 어머니, 어머니의 할머니, 할머니의 어머니, 그 어머니의 할머니들이 최하층 천인으로서 무슨 일을 해왔는지 알고 있었다. 어머니라고 달라진 것은 없었다. 마음 편할 날 없고, 몸으로 치러야 하는 노역은 같았다. 우리의 조상은 세습하여 신역을 바쳤다. 우리의 조상은 상속·매매·기증·공출의 대상이었다. 어느 날 어머니는 나에게 말했다.

“너희들은 엄마를 잘못 두어 이 고생이다. 아버지하고는 상관이 없다.”

어머니는 장남인 나에게만 말했다. 외할머니에게 들은 말을 나에게 전한 것이었다. 천년을 두고 우리의 조상은 자손들에게 이 말을 남겼다. 그러나 나는 알고 있었다. 아버지도 씨종의 자식이었다.

할아버지의 아버지대에 노비제는 사라졌다. 증조부 내외분은 아무것도 몰랐다. 나중에서야 해방을 맞았다는 것을 알았으나 두 분이 한 말은 오히려 “저희들을 내쫓지 마십시오.” 였다. 할아버지는 달랐다. 할아버지는 유습에서 벗어나려고 했다. 늙은 주인은 할아버지에게 집과 땅을 주었다. 그러나 쓸데없는 일이었다. 모르는 면에서는 할아버지나 증조부나 같았다. 증조부대까지는 선조들이 살아온 경험이 도움이 되었으나 할아버지대에는 그것이 도움을 주지 못했다. 할아버지에게는 어떤 교육도 없었고 경험도 없었다. 할아버지는 집과 땅을 잃었다.

(나) 롤스(Rawls J.)는 봉건 귀족 사회를 시작으로, 정의에 관한 대답하는 이론 몇 가지를 비교하면서 이 주장을 펼친다. 요즘에는 봉건 귀족 계급이나 카스트 제도의 정의를 옹호하는 사람은 없다. 롤스가 보기에, 이런 제도는 출생이라는 우연을 기준으로 소득, 재산, 기회, 권력을 분배한다는 점에서 불공평하다. 귀족으로 태어난 사람은 농노로 태어난 사람이 가질 수 없는 권리와 권력을 갖는다. 그러나 타고난 환경은 노력의 결과가 아니다. 삶의 전망이 이런 임의의 현실에 좌우된다면 부당한 일이다. (...중략...)

롤스는 능력 위주라는 개념이 도덕적으로 임의의 상황에서 나오는 특정한 이점을 되돌리기는 해도 정의를 실현하기에는 여전히 미흡하다고 생각한다. 모든 사람을 애써 똑같은 출발선에 세웠더라도 누가 그 경기에서 승자가 될지, 그러니까 가장 빠른 주자가 누구인지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빠른 주자가 되는 것은 전적으로 내 노력에만 좌우되지는 않는다. 풍요로운 가정에서 태어나는 것이 우연이듯이, 빠른 주자가 되는 것 역시 도덕적 우연이다. 롤스는 이렇게 썼다. “능력 위주의 사회가 사회적 우연을 완전히 제거한다면, 타고난 능력과 재능에 따라 부와 소득의 분배가 결정되는 상황은 여전히 허용된다.”

(뒷면에 계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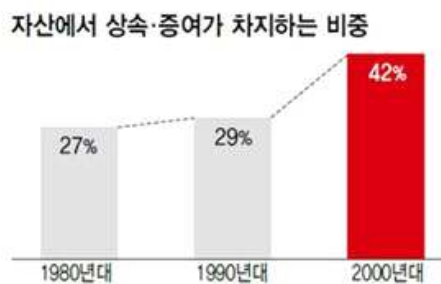
롤스의 말이 옳다면, 교육 기회가 균등한 사회에서도 자유시장은 소득과 부를 공정하게 분배하지 못한다. 이유는 이렇다. “분배되는 몫은 타고난 운에 따라 결정된다. 그리고 그 운은 도덕적 관점에서 볼 때 임의성을 띤다. 소득과 부의 분배가 역사적·사회적 우연으로 결정되어서는 안 되듯이, 타고난 자산에 따라 결정되어서도 안 된다.”

롤스는 정의를 능력 위주 개념으로 이해하는 것은 자유시장주의개념으로 이해하는 것과(비록 정도는 약하지만) 똑같은 이유로 문제가 있다고 결론 내린다. 즉 둘 다 분배되는 몫이 도덕적으로 임의의 요소에 좌우된다. “사회적 우연이 분배 몫을 결정하는 데 미친 영향을 고민하다 보면 결국 타고난 우연이 분배 몫에 미친 영향을 고민하게 된다. 또 타고난 우연의 영향을 고민하다 보면 사회적 우연의 영향을 고민하게 된다. 도덕적 관점에서 보면 그 둘은 똑같이 임의성을 띤다.”

(다) 많은 사람들이 불평등에 대해 분노한다. 하지만 평등도 평등 나뉘이다. 노력과 성취의 크기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보상할 경우 재능 있고 노력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성취동기를 잃어버린다. 이것이 바로 결과의 평등인데, 결코 좋은 시스템이라고 할 수 없다. 공산주의의 몰락이 그 증거이다. 우리가 추구해야 할 평등은 기회의 균등이다. 예를 들어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인종 분리 정책이 한창일 때 우수한 흑인 학생이 흑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백인 학생들이 다니는 좋은 대학에 가지 못하는 것은 부당할 뿐 아니라 비효율적이다. 모든 사람에게는 균등한 기회를 주어야 한다. 그러나 역차별 정책을 사용해서 단지 흑인이라거나 가난한 집 출신이라는 이유만으로 자질이 못 미치는 학생들을 좋은 학교에 입학시키는 것 역시 부당하고 비효율적이다. 이런 식으로 결과의 평등을 추구할 경우 사람들의 타고난 재능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 최고의 능력을 가진 사람과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는 사람들이 손해를 보게 되기 때문이다.

2-1. 제시문 (나)에 나오는 개념을 활용하여 제시문 (가)의 난장이 가족과 그 조상들의 삶을 비교 분석하십시오. (250자±20자) [15점]

2-2. 제시문 (나)의 관점에서 아래 제시한 도표를 활용하여 제시문 (다)의 주장을 비판하십시오 (300자±20자) [15점]



(다음 장에 계속)

**【문제 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최저임금제는 가격하한제의 대표적 사례다. 노동시장에서 노동의 가격이라 할 수 있는 임금의 하한을 설정하는 것이 최저임금제의 주된 특징이다. 이때, 하한가격(최저임금)이 노동시장의 \*균형임금을 상회해야 균형임금이 변화해 제도가 실효성을 갖는다. 최저임금이 균형임금보다 높게 설정되면 노동 공급량은 증가하지만, 반대로 노동 수요량은 감소해 비자발적 실업이 발생하는데 이때 고려해야 할 사항이 노동 수요의 임금 탄력성이다. 노동 수요가 시간당 임금에 대해 탄력적일수록, 바꿔 말해 기업이 시간당 임금 인상에 민감하게 반응할수록 고용량 감소가 크게 나타난다. 반대로, 노동 수요의 임금 탄력성이 작을수록, 즉 기업이 시간당 임금 인상에 둔감하게 반응할수록 고용량 감소는 작게 나타난다. 따라서 노동 수요의 임금 탄력성이 큰 경우 최저임금제는 당초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워지는데, 최저임금제에 반대하는 측은 이런 사례 등을 들어 미숙련 저임금 근로자를 위한 정책이 오히려 그들의 직업 안정성을 저해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그러나 최저임금제에 찬성하는 측은 실업이 늘어나더라도 그 규모가 크지 않으며, 미숙련 저임금 근로자에 대한 노동 수요나 공급의 임금탄력성이 크지 않기 때문에 최저임금제가 이들의 고용에 이렇다 할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더구나, 최저임금 인상에는 저임금 근로자의 소득을 증가시켜 소비를 진작시킴으로써 내수 시장 전체의 성장을 꾀하는 긍정적인 효과도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균형임금: 노동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의 상호작용에 의해 결정된 임금 수준.

(나) 국제구호단체 옥스팜이 분석한 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 6월부터 1년 동안 증가한 부의 82%는 전 세계 상위 1% 부자들이 차지했다. 반면 소득 하위 50%는 창출된 부에서 가져가는 몫이 전혀 없었다. 옥스팜의 위니 비아니마 이사는 “억만장자들만 번성하는 현상은 경제가 성장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시스템 실패의 증표”라고 설명했다. 또 “옷을 만들고, 휴대전화를 조립하고,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기업과 부유층에게 착취당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옥스팜은 각국 정부가 공정한 부의 배분, 더 강한 노동자의 권리를 위한 정책에 집중해야 한다며 여기에는 최저임금제의 시행 및 강화, 생계비 지원, 노동조합 지원, 성차별적 관행 타파 등이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서 한국 정부에 정책 제언을 했다. 국제통화기금 보고서에서 주목할 점은 한국 경제의 기초 체력인 잠재 성장률의 급격한 하락과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대한 우려다. 현재 2%대 후반인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2030년 무렵 1%대로 추락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 원인으로는 급속한 고령화로 인한 생산인구 감소, 낮은 생산성, 왜곡된 노동시장 구조를 꼽았다. 또한 올해 최저임금 인상은 저임금 근로자의 일자리를 파괴하고 한국의 국가 경쟁력을 상실하게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제통화기금은 현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객관적 평가를 해볼 것을 한국 정부에 권고하고 있다.

(라) 지난 2014년부터 점진적으로 최저임금을 올리고 있는 시애틀은 최저임금을 시간당 15달러까지 올리는 계획을 갖고 있다. 2017년말을 기준으로 한 최저임금은 시간당 평균 13달러이다. 워싱턴대 연구팀에 따르면 시애틀에서는 최저임금이 시간당 13달러로 오르면서 임금이 3% 올랐지만 일자리 수는 9만 3382개에서 8만 6842개로 7% 줄었다. 저임금 노동자들의 근무시간이 9% 줄었고, 급여도 125달러 줄었다. 또 최저임금이 1달러씩 오르면 취업 기회가 3달러씩 증발한다고 했다.

독일은 2015년 1월 법정최저임금제를 도입했다. 기존 ‘노사간 자율협약’에 급여 산정방식을 맡겼던 독일 정부는 모든 업종에 대해 최저임금제를 적용했다. 최저임금 정책이 시작되고 2년 6개월여가 지난 2017년 8월 기준으로 독일의 업종간 임금격차는 전체 0.2% 감소했다. 과거 법정 최저임금 이하의 급여

(뒷면에 계속)

를 받았던 업종의 경우에도 임금격차가 5.7% 줄었다. 신규 일자리가 40만개 이상 증가했고 2017년 2분기에는 독일 취업자수가 4,420만 명에 달하며 역대 최고치를 갱신했다. 전분기대비 +1.5%, 전년동기대비 +1.1% 증가한 수치였다.

(마) 헌법 제32조 제1항은 국가의 개입·간섭을 받지 않고 자유로이 근로를 할 자유와, 국가에 대하여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는 정책을 수립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등을 기본적인 내용으로 하고 있다. 또한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 그리고 최저임금제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완전고용의 달성은 물가의 안정, 경제성장, 국제수지의 균형, 소득과 부의 평등한 분배와 더불어 경제정책의 주요한 목표이다. 현행 헌법은 고용의 증진이라는 경제정책의 주요한 목표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현행 헌법은 적정 임금의 보장과 최저임금제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임금은 소득과 부의 분배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근로조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다. 제32조 제3항은 전반적인 근로조건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할 수 있는 근로조건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근로조건에는 임금, 근로시간, 복지, 해고 기타 대우 등이 포함된다.

(바) 시장 경제 체제에서는 자유 경쟁을 통해 형성된 가격에 따라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된다.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된다는 것은 초과 수요나 초과 공급이 발생하지 않고, 사회적 잉여가 최대가 되는 상태를 의미한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완전한 경쟁이 발생하기 어렵기 때문에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처럼, 여러 가지 이유로 시장의 효율적 자원 배분이 실패하는 경우가 생기는데, 이를 시장 실패 현상이라고 한다.

시장이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지 못하고, 그로 인해 사회적으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한다면 이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할 것이다. 시장의 실패를 보완하기 위한 대표적인 방안은 정부의 직접 개입이다. 하지만, 정부의 시장 개입으로 언제나 최적의 자원 배분 상태를 이룰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불완전한 지식과 정보, 규제 수단의 불완전성, 이해 집단들의 정치적 압력, 관료의 부정 부패 등의 이유로 정부의 시장 개입이 오히려 비효율성을 초래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시장 실패 현상을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시장 개입과 규제의 결과로 자원의 효율적 배분에 실패하거나 오히려 자원 배분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경우를 정부 실패 현상이라고 한다.

3-1. 제시문 (나), (마), (바)의 논지를 바탕으로 최저임금제를 시행하는 정부의 입장을 서술하시오. (200자 ±20자) [15점]

3-2. 제시문 (나)와 (다)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사례를 제시문 (라)에서 각각 찾아, 해당 시장의 특성과 상황을 제시문 (가)를 근거로 추론하시오. (350자±20자) [25점]

\* 주의 사항: 문제지, 연습지, 답안지에 필요한 인적 사항을 기입하였는지 확인하시오.